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제자리 삶은 그리워지는 것”

이영화 비움박물관장, 개관 10주년 서울·광주 순회전 ‘한반도의 평화, 위낭소리’

위낭·전통 민속품 통해 잊혀져가는 공동체 정신, 평화 가치 되새겨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것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비움박물관이 한국 근현대 민중의 삶과 정서를 담은 민속품을 통해 잊혀가는 공동체의 가치와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순회전 ‘한반도의 평화, 위낭소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순회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는 10일부터 7월12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먼저 열리고, 이후 7월21일부터 8월28일까지 광주 비움박물관에서 이어진다.

전시의 중심에는 ‘위낭’이 있다. 소의 목에 달던 방울인 ‘위낭’은 농경사회에서 소를 보호하고 역운을 막는 상징으로 여

겨졌다. 이영화 비움박물관 관장은 “요즘 사람들은 위낭이 왜 필요했는지 잘 모른다”며 “소가 움직일 때 울리는 소리와 진동은 뱀을 쫓는 역할을 했고, 소는 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위낭은 소를 지키는 액막이이자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비움박물관이 50여 년 동안 수집한 위낭 100여 점과 한국 농경시대 민속품들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설치미술가 고근호 작가와 목공예 작업에 하는 목원 작가가 참여해 전통 민속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 민속품인 위낭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고근호 작가 작품(왼쪽)과 오는 10일 서울에서의 순회전을 앞두고 있는 비움박물관이 전시에서 선보일 민속품.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시간의 공명’ 시리즈 32점과 ‘시골’ 시리즈 17점 등 총 49점의 설치작품이 소개된다. 전시는 경인미술관 1·2층 복층 공간을 활용해 구성된다. 1층에서는 대형 작품을 중심으로, 2층에서는 소품 위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옛 물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라져가는 정신과 삶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것들은 박물관에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흔적은 만나기 어렵다”며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할 가치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옛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물건을 만들고 사용했다”며 “지금의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그 시절의 삶 속에 우리가 놓친 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움박물관이 주목하는 것은 민속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이다. 이 관장은 “상(床)을 이야기할 때도 음식이나 형태는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민속품 역시 용도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때 위낭은 부의 상징이었고 평화를 지키는 상징이기도 했다”며 “오늘날에는 전쟁과 갈등, 분열을 막아주는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읽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개관한 비움박물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박물관에는 이 관장이 약 50년 간 수집한 한국 근현대 민속품 3만여점이 소장돼 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50여차례의 기획전과 100여회에 이르는 인문학 강좌를 이어오며 사라져가는 생활문화를 기록해왔다.

이 관장은 “1960년대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살았



개관 10주년을 맞은 비움박물관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문체부 공모사업 순회전시를 연다. 사진은 전시에 대해 소개하는 이영화 비움박물관장.

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배제하지도 않았다”며 “잘살게 되면서 잃어버린 따뜻한 문화를 되살리는 데 남은 삶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질문명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눈물겹게 가난했지만 사무치게 아름다웠던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시가 오래된 미래를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붓으로 그려낸 삶의 기록...시민작가 12인 ‘오감도’

그림인연 특별기획전, 오늘부터 일곡도서관 갤러리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민작가들이 삶의 기록과 감성을 담은 작품으로 관람객과 만난다. 시민작가 모임 ‘그림인연’은 9일부터 22일 까지 북구 일곡도서관 갤러리에서 특별기획전 ‘길 위에 피어난 스케치-오감도(五感圖)’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과 기억을 기록해 온 시민작가 12명이 참여해 풍경화와 어반스케치, 드로잉, 오브제 작품 등 7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강경연·김성미·김용두·김종문·김창준·문승일·박병무·박향·심일남·양승희·유정미·한용숙 작가다.

특히 올해 80세를 넘긴 김창준 작가는 광주 시체육회장을 역임한 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

서는 새로운 도전의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박향 작가는 보건복지부 공공 보건정책관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시민안전실장을 역임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이밖에도 공무원, 의료행정가, 체육인, 자영업자,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과 추억을 표현했다.

전시 부제인 ‘오감도’ (五感圖)는 관람객이 경험하는 참여형 전시를 의미한다. QR코드를 통해 작가의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향기와 오브제 체험 등을 통해 작품 속 기억과 감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



김창준작 ‘팜비치 낙조’

할 수 있다. 김창준 작가는 “이번 전시는 그림 실력을 보여주지 위한 자리라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온 시민들이 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전시”라며 “관람객들도 작품을 통해 자신의 추억과 감정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꿈과 기억 사이 내재된 불완전한 존재의 초상

강동호 초대전 ‘The Imperfect Angel’...30일까지 GIST 오희아트홀

강렬한 원색과 몽환적인 이미지가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다. 꿈과 무의식, 기억과 감정이 뒤섞인 화면 속에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강동호 작가 초대전 ‘The Imperfect Angel’이 오는 30일까지 GIST 오희아트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사적인 경험과 감정을 투영한 회화 작품 7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회화와 판화 작업을 기반으로 팝아트와 그래픽의 시각적 감각을 접목해 인간 내면의 감정과 기억을 탐구해 왔다. 삶 속에서 마주한 감정의 흔적을 단순화된 형상과 강렬한 색채로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원색과 형광에 가까운 색감을 적극 활용해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천사와 영혼, 내면의 자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대표작 ‘Angel mine’은 천사(Angel)와 ‘나’의 ‘짓’을 뜻하는 마인(Mine)을 결합한 제목의 연작이다. 작가가 작업 중 즐겨 들었던 캐나다 얼터너티브 록 밴드 카우보이 정키스의 동명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작품은 천사인자 소녀처럼 구부러진 어려운 여인의 형상을 통해 작가의 꿈과 희망을 투영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 ‘To live is to fly’에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작품 ‘꿈의 시작’은 현실과 무의식이



‘엔젤마인’

교차하는 순간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 작가는 꿈을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무의식이 이미지로 드러나는 출발점으로 바라 보며, 이미지의 연쇄와 충돌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감각을 표현했다. 강동호 작가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감정을 안고 살아간다”며 “이번 전시가 자신의 내면에 남아 있는 감정과 기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것 너머 이미지를 묻다

최요안 기획초대전 ‘잠상’...내달 19일까지 드영미술관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드영미술관은 오는 7월19일까지 1·3전시실에서 2026 최요안 기획초대전 ‘잠상’(潛像)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받아 들여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자리다. 전시에는 회화, 사진 설치, 플라주 등 총 9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잠상’은 사진에서 빛에 반응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작가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보이는 이미지 뒤에 숨은 구조와 인식의 과정을 탐구한다. 전시는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숨겨진 언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인 프롬프트를 기계가 읽는 데이터로 변환한 뒤 이를 흑백 격자 형태로 구현했다. 관람객은 전시와 연계된 웹사이트를 통해 인간의 언어가 기계의 언어를 거쳐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검은 빛, 하얀 어둠’은 색과 명암을 반전한 회화 작품으로 꾸며진다. 작품은 일반적

인 시선으로 볼 때와 네거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에서는 다양한 이미지가 같은 형식 안에 배열된다. 컬러 이미지는 흑백으로, 흑백 이미지는 비어 있는 화면으로 이어지며 이미지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마지막 섹션 ‘심연으로부터’에서는 신문과 잡지 이미지를 오려 붙여 만든 초기 콜라주 작업을 소개한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수록 수많은 이미지 조각이 겹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선택과 편집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변기숙 드영미술관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는 생성형 인공지능, 네거티브 회화, 플라주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인식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자리”라며 “보이는 이미지 너머의 구조와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